# □ 특집 / 외래어 표기법

# 외래어 표기, 남북한이 어떻게 다른가

─ 외래어 표기법·국어 사전·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

金 希 珍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Ι

외래어의 원어가 되는 언어명이 다르고 같은 언어라 하더라도 남북한의 외래 어 표기법이 부분적으로 달라 형태도 자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외 래어 표기가 남북한 간에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 다.

- 가. 남북한의 외래어 표기를 비교하고자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외래어 표기법

- (가) '외래어 표기법' 대한민국 문교부, 19861), 약칭: '남외',
- (나)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조선어 및 조선 문학 연구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1956. 약칭: '북외56'.
- (다) '외국말적기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 과학,백과사 전출판사, 1985. 약칭: '북외85'.

이 밖에 필요에 따라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조선어 학회, 1941)과 '고친 외래어 표기'(1984, 문화어 학습 3호에 수록됨.)도 참고하였다.

## 2. 국어 사전

- (가)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1.
- (나) 조선말대사전 1·2,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이 밖에 부분적으로 민중서림판 '국어대사전'(1995)과 '현대조선말사전' (1981)도 참고하였다.

<sup>1)</sup> 문교부가 '외래어 표기법'을 1986년 1월 7일에 고시한 이후. 1992년에는 문화부가 東歐 圈 5개 언어 외래어 표기법을, 1995년에는 문화 체육부가 北歐圈 3개 언어 외래어 표기 법을 추가로 각각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외래어 표기법 관련 자료에서 이들 동구권이나 북구권 언어를 다루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는 편의상 1986년만을 명기하 기로 한다. 이 외에도 '조선어 철자법 통일안'(1933),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조선어 학 회, 1941), '외래어 표기법'(학술 용어 제정 위원회, 1948), '들온말 적는 법'(문교부, 1952),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문교부, 1958), '편수 자료 제1집'(1959, 로마자의 하글 화 표기 방법을 정리, 세칙과 표기의 예를 제시함.)과 '편수 자료 제2집'(1959, 지명을 수록함.), '편수 자료 제3집'(1960, '편수 자료 제1집'의 보완판, 영어 외에 독일어, 프랑 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표기법을 제시함.), '편수 자료 제4집'(1963, '편 수 자료 제2집'의 보완판. 인명을 추가함. 장음 표기의 제한 사용과 중장음 표기, 어말 파열음 처리 등이 '편수 자료 제3집'과 상충되는 조항이 생김.). 편수 자료 제3집~제6 집의 합본(1972, 제3집과 제4집 간의 상충점에 대하여 참조 조치를 취함.), 그리고 '외 래어 표기법'(1986)에 따른 '외래어 표기 용례집'(국어 연구소, 1집은 지명 · 인명, 1986, 2집은 일반 용어. 1988) 등에 관해서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이은정, 남북한 어문 규범 고찰, 백산 출판사, 1996. pp. 166~168.과 '새국어생활' 이번 호에 실린 林東勳의 '외래 어 표기법의 원리와 실제'가 이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3. 국어 교과서

- (가) 남한: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국어(문학 포함) 교과서 일체(1990 년대 발간분)
- (나) 북한: 인민 학교, 고등 중학교 국어(국어 문학 포함) 교과서 일체(1990 년대 발간분)

## 나. 용례(예시어), 원어 등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보였다.

#### 1. 용례(예시어)

- (가) 예시어는 대체로 단어로 되어 있으나, 접사나 구 등도 포함하였다.
- (나)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필요할 경우 외래 어 표기법에 따르지 않은 단어도 포함하였다.
- (다) 띄어쓰기는 표기법 관련 자료·국어 사전·국어 교과서에 따르되, 붙여 씀을 원칙으로 하였다.
- (라) 예시어에는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북한 의 표기법 용례 중에 외국어로 판단되는 말이 보이는바, 이는 표기 용례를 보이고자 부득이 취한 것으로 생각한다.
- (마) 용례의 출처는 편의상 북한 표기법 관련 쪽만 밝히기로 한다.

#### 2. 원어

- (가) 언어명은 & 표시와 함께 밝히되, 남한 것은 원어 앞에, 북한 것은 원어 뒤에 나타냈다. 다만, 다른 언어명과 대비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 어에서 온 것은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발음 표시에 있어 강세는 생략하 였다.
- (나) 언어명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독: 독일어, 라: 라틴어, 러: 러시아어, 말: 말레이시아어,

에: 에스파냐어, 이: 이탈리아어, 일: 일본어 중: 중국어,

체: 체코어 포: 포르투갈어, 프: 프랑스어, 헤: 헤브루어

#### 다. 그 밖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빗금 왼쪽은 남한 표기법 관련 자료나 남한 사전·국어 교과서의 어형을, 오른쪽은 북한 표기법 관련 자료나 북한 사전·북한 교과서의 어형을 가리키며, 원어가 같을 때에는 어느 한쪽에만 제시하였다.
- 2. 남한 외래어와 쌍이 되는 북한 외래어의 원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 우에 표시하였다.
- 3. 두음 법칙 적용 여부, 이중 모음 표기 여부 등 국어 표기법이 남북한이 서로 다른 데서 나타나는 어형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 4. 예시어나 이의 원어 등은 남북한 외래어 표기법 관련 자료·국어 사전·국어 교과서에서 보인 대로 제시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원어명이 빠진 것이라든 가, 오자나 탈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라든가, 원어 앞에 ←이나 표시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든가 하는 것도 표기법 관련 자료·국어 사전·국어 교과서에서 보인 그대로 둠을 원칙으로 하였다.
- 5. 남한의 외래어 표기법이나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장음 표기도 그대로 보였다.
- 6. 남북한 사전의 외래어 한 쌍이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한 일 대 일로 대응을 이루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전문성이 높은 단어일 경우, 같은 단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 더욱 그러하다
- 7. 띄어쓰기는 현행 규정에 따랐다. 띄어쓰기에 원칙 규정과 허용 규정이 있을 경우, 될 수 있으면 원칙 쪽을 따르되, 아라비아 숫자와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 등에는 허용 쪽을 따랐다.
  - 8. 사정에 따라 一字 들여쓰기를 지키지 않은 곳도 있다.
- 9. 예시어에 밑줄을 친 것은 서로 비교하기 쉽도록 한 것으로, 비교 대상이 첫소리[初聲]나 가운뎃소리[中聲]나 끝소리(終聲, 받침소리) 중 어느 하나에 만 해당하더라도 편의상 한 음절 전체에 밑줄을 그었다.

# 라. 여기에서 쓰인 기호는 다음과 같다.

- + 형태 결합을 보일 때
- ← 원음이 변한 원어 앞에
- † 원산지에서 쓰이지 않는 외래어 조어일 때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에 비교되는 대상의 일부가 같을 때
 어떤 문장에서 뒤의 말을 생략할 때

II

외래어의 표기가 남북한 간에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표기법 관련 자료나 국어 사전, 그리고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외래어 표기법의 체재

남한의 '외래어 표기법'(1986, 1992, 1995)은 4장 112항<sup>2)</sup>으로, 15개 언어 적기법이 있고, 북한의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1956)은 7장 103항으로<sup>3)</sup>, '외국말적기법'(1985)은 총칙과 8개 언어 적기법으로 짜여 있다.

이들 표기법의 '차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외래어 표기법(1986)

제 1 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 2 장 표기 일람표

- 표 1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
- 표 2 에스파냐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표 3 이탈리아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표 4 일본어의 가나와 한글 대조표

<sup>2)</sup> 이 項數는 문교부 고시 '외래어 표기법'(1986)과 문화부 고시 (東歐圈 5개 언어) '외래 어 표기법'(1992)과 문화 체육부 고시 (北歐圈 3개 언어) '외래어 표기법'(1995)을 종 합한 것이다.

<sup>3)</sup> 총 212면으로 된 북한의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에는 외래어 표기법 외에 '외국 자모에 의한 조선어 표기법'과 '조선어의 어음 전사법'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부록편으로 '조선어 외래어 어휘집'(국판 총 100면, pp. 113~212)을 마련, 확정한 표기법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북한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일반 용어와 일부 전문 학술 용어를 실었다.

- 표 5 중국어의 주음 부호(注音符號)와 한글 대조표
- 표 6 폴란드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표 7 체코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표 8 세르보크로아트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표 9 루마니아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표 10 헝가리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표 11 스웨덴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표 12 노르웨이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표 13 덴마크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 제 3 장 표기 세칙

- 제 1 절 영어의 표기
- 제 2 절 독일어의 표기
- 제 3 절 프랑스어의 표기
- 제 4 절 에스파냐어의 표기
- 제 5 절 이탈리아어의 표기
- 제 6 절 일본어의 표기
- 제 7 절 중국어의 표기
- 제 8 절 폴란드어의 표기
- 제 9 절 체코어의 표기
- 제10절 세르보크로아트어의 표기
- 제11절 루마니아어의 표기
- 제12절 헝가리어의 표기
- 제13절 스웨덴어의 표기
- 제14절 노르웨이어의 표기
- ....
- 제15절 덴마크어의 표기

# 제 4 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 제 1 절 표기 원칙
- 제 2 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제 3 절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 세칙

#### 2.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1956)

#### 제 I 장 서론

제 🛮 장 조선어 자모에 의한 로씨야어 자모의 대조에 관한 일반적 규칙

- [ I ] 조선어 자음자에 의한 로씨야어 자음자의 대조에 관한 세칙
- [Ⅱ] 조선어 모음자에 의한 로씨야어 모음자의 대조에 관한 세칙
- [Ⅲ] 어음 변종 및 어음 결합의 표기에 관한 규정
  조선어 자모에 의한 로써야어 자모의 대조 일람표
  제Ⅲ장 조선어 자모에 의한 만국 음성 기호의 대조에 관한 일반적 규칙
  조선어 자모에 의한 만국 음성 기호의 일반적 대조표
  - [I] 조선어 자음자에 의한 자음을 표시하는 만국 음성 기호의 대조에 관하 세칙
  - [Ⅱ] 조선어 모음자에 의한 모음을 표시하는 만국 음성 기호의 대조에 관한 세칙
- [Ⅲ] 어음 변종의 표기에 관한 규정
  제Ⅳ장 철자법의 일반적 원칙과 관련되는 규정
  제Ⅴ장 정칙 발음법의 일반적 규칙과 관련되는 규정
  제Ⅵ장 구두점과 관련되는 규정
  제Ⅶ장 외래어 사정에 관련되는 규정

#### 나. 표기의 기본 원칙

이제 남북한 표기법의 기본 원칙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 '남외'의 기본 원칙을 보면,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기(제1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기(제2항), 받침으로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쓰기(제3항),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제4항), 일부 외래어에 대해 관용을 존중하기(제5항)順으로 되어 있다.

2. '북외56'의 서론(제1장)은 '남외'의 기본 원칙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 (가) 외래어 표기법 제정의 목적(제1항): 조선 외래어의 어음 구성을 확정하는 토대 우에서 그의 표기법을 고착시킴.
- (나) 외래어의 定義(제2항): 조선어 중 외국어적 기원이 명백한 단어.(고유 명사도 포함함.)
- (다) 외래어의 표기 수단(제3항): 한자가 아닌 조선 자모.
- (라) 표기 원칙
- (1) 해당 외래어를 받아들인 그 인민의 언어의 어음론적 및 표기법적 특성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어음 구성이 류사한 외래어는 가급적 현대 로씨야어의 어음론적 및 표기법적 특성에 의거하여 표기한 (제4학)
- (2) 일본에서 유래한 외래어는 일본 가나 문자로 하고, 중국에서 유래한 외래어 중 이미 굳어진 것은 한자에 대한 조선어적 발음으로 표기함.(제5항)
- (3) 라틴어에서 유래한 학술 용어는 라틴어에 대한 로씨야어식 발음으로 함.(제6항)
- (4) 외래어 표기는 조선어의 음운 조직과 정칙 발음법에 따르되, 원어의 어음론적 특성에 접근함.(제9항)
  - (5) 원어의 음운을 충실히 반영함을 원칙으로 함.(제10항)
- (6) 철자법이 형태주의에 립각한 언어(예: 로씨야어)에서 유래한 외래어는 원어의 자모(로씨야어 자모)와 조선어 자모를 직접 대조시키고, 력사주의에 립 각한 언어(예: 영어, 불란서어)에서 유래한 외래어는 원어의 음운을 표시한 보 조적 음성 기호와 조선 자모와의 대조를 매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여(제11항), 위의 두 경우에 관한 일반적 규칙을 정함.(제12항)
  - (마) 외래어 사용의 제약(제7항): 불필요한 외래어는 사용하지 않음.
  - (바) 외래어를 표기하는 조선의 자모 체계(제8항)4): 현행에 한함.

여기에서 남한과 북한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을 비교할 때, '외래어 표기법(1986)'이 비교적 어느 세칙에서나 공통되는 표기법상의 기본 원칙을 보인데 대하여,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1956)은 배경적이고 외적이며<sup>5)</sup> 일부 언어특히 러시아어 표기법에 편향된 느낌을 준다. 러시아어 표기법에 대한 이러한 면중 경향은 '고친 외래어 표기'(1984, 이하 '북외고'라 한.)에서 다소 줄어들

<sup>4)</sup> 이 글 82면을 참조할 것.

<sup>5)</sup> 성광수(1989), "북한의 외래어 표기법", 고영근 등, 북한의 말과 글, (올유 문화사, p. 103)을 참조함.

## 었다고 할 수 있다.6)

다음 1985년에 발행한 '외국말적기법'<sup>7)</sup>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괄호 속의 말은 이 글에서 사용한 약칭임.)

#### 총 칙

- I. 중국말단어를 우리 글자로 적는 법(중국어)
- Ⅱ. 로씨야말단어를 우리 글자로 적는 법(로씨야말)
- Ⅲ 독일말단어를 우리 글자로 적는 법(독일말)
- Ⅳ. 영어단어를 우리 글자로 적는 법(영어)
- V. 프랑스말단어를 우리 글자로 적는 법(프랑스말)
- VI. 일본말단어를 우리 글자로 적는 법(일본말)
- Ⅶ. 에스빠냐말단어를 우리 글자로 적는 법(에스빠냐말)
- Ⅷ. 라틴말단어를 우리 글자로 적는 법(라틴말)

'총칙'에서는 김일성 교시를 소개하고8)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외국말적기법》은 다른 나라 말의 단어 특히 고유명사를 그 나라 말의 발음대로 적는데 적용한다.
- 나. 《외국말적기법》은 외국말단어를 적는데서 조선말의 말소리 특성을 존 중하며 되도록 지금의 조선말글자체계를 따른다.
- 다. ≪외국말적기법≫은 우리 말에 들어와 쓰이는 외래어의 적기에는 원칙적

<sup>6) &</sup>quot;외래어를 표기할 때에는 그것이 어느 나라 말인가를 알아보고 그 나라 사람들이 발음 하는대로 표기하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하고 '북외고' 序頭에서 밝혔다. 그리고 이어 출발어(원어)가 명백한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발음하는대로 적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아그레망(x)아그레만(로씨야어)〉, 이탈리아어 계열의 음악 부문 외래어는 라틴어식 표기 방식을 그대로 쓰기로 하였다.〈예:(○)포르테(x)포르떼〉

<sup>7) &#</sup>x27;북외56'을 발간한 지 13년 만인 1969년에 국어사정위원회가 공포한 '외국말 적기법'(사회과학출판사)을 검토, 보완하여 그로부터 16년 만인 1985년에 간행한 것이다.

<sup>8) ○</sup> 다른 나라 고유명사는 일본말이나 중국말로 발음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발음을 그 대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이름은 그 나라 말로 써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18권, 23페지)

<sup>○</sup> 공산주의자들인 우리는 우리 말의 민족적특성을 살리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나가 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20권. 338폐지)

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위의 내용도 외래어 표기법의 일반적인 원칙들을 요약한 것으로 '북외56'과 크게 달라진 것은 보이지 않는다.

- 3. 이어, 남북한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 (가) { 남 외: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제1항) 북외56: 외래어의 표기는 현행 조선어 자모 체계에 의거하며, 새로운 자 모, 새로운 보조적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제8항)
- 이 규정은 '조선어 철자법 통일안'(1933)에서 보인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 중 "새 글자나 부호를 쓰지 아니한다."는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 하겠다. '남외'에서 말하는 24자모는 '한글 맞춤법' 제2항에서 보인 다음의 자모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위의 24자모 이외에 두 개 이상의 자모가 어울려서 된 다음의 것도 제시하였다.

- (나) { 남 외: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제2항) 북외56: ※제11항이 부분적으로 관련된다.(이 글 80면, (6)을 참조할 것.)
- (다) { 남 외: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제 3항) 북외56: ※대응되는 규정이 없으나, 표기법이나 국어 사전·국어 교과서 에서 보인 외래어 용례 중에는 이와 어긋나는 용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라) { 남 외: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4항) 북외56: ※파열음 표기에 예삿소리나 거센소리와 대응시킨 것도 있고, 된소리와 대응시킨 것도 있다. 국어 사전·국어 교과서의 용 례에서는 된소리로 표기된 예를 적잖게 볼 수 있다.

우선 북한의 외래어 표기법에서 된소리로 적도록 한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n, т, к≫는 ≪ш, ㄸ, ㄲ≫로 적는다.('북외56', 조선어 자음자에 의한 로씨야어 자음자의 대조에 관한 세칙 제14항)

(2) 자음 ≪k≫, ≪p≫, ≪T≫는 각각 ≪ㄲ, ㄲ», ≪ㅃ, ㅃ», ≪ㄸ, ㄸ≫로 적는다.('북외85', 프랑스말 2-11)

[paskal] 빤스깔[pastær]빤스뙤르[eroik]에로이끄[ærtwa: r]외르딸르

(3) 일본 ≪가나≫의 기본글자와 그 결합체는 다음 표와 같이 우리 글자에 대응시켜 적는다.('북외85', 일본말)<sup>9)</sup>

 カ外
 キ끼
 クヤ
 ケ州
 コ 辺

 夕叶
 テ몌
 ト 또

 パ빠
 ピ삐
 プ 뿌
 ペ 뼤
 ポ 里

 キャ 亦
 キュ 뀨
 キョ 꾜

 ピャ 빠
 ピュ 쀼
 ピョ 蛆

<sup>9)</sup> 편의상 히라가나의 예는 생략하였다.

(4) ≪K≫는 모음앞에서 ≪ㄲ≫로, ≪P≫는 ≪ㅃ, ㅃ≫로¹º), ≪T≫는 ≪ㄸ, ㄸ≫로 적는다.('북외85', 에스빠냐말 4-14, 4-21, 4-25)

〈 k - ㄲ 〉 La Kornija 라 <u>꼬</u>르니하 Tunki 뚠<u>끼</u> 〈 p - ㅃ 〉 Papuri <u>빠뿌</u>리 Copiapo <u>꼬삐</u>아<u>뽀</u> 〈 T - ㄸ 〉 Batista 빠띠스따 Tolten 똘몐

(5) 원어의 개별적 어음이 조선어 외래어에서 독특한 수식화를 입어 이미 굳어진 것은 그대로 표기한다.('북외56', 제101항)

≪ b, d, g≫ 등의 음이 ≪배, ㄸ, ㄲ≫로 굳어진 것<sup>11)</sup>

bar 빠 bus <u>삐</u>스 block <u>별</u>럭 bag 빽 ball 뽈 dollar 딸라 dance 딴스<sup>12)</sup>
goal 꼴 game 껨 gum 낌

(6) 이 외에도 외래어 표기법·국어 사전·국어 교과서에서 보인 예를 남북 한을 대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 ¬¬ 〉 갱(gang)/깽(←~).
- ( ㅂ ㅃ ) <u>배</u>지(badge)/<u>빠</u>찌(←~), <u>보</u>이(boy)/<u>뽀</u>이(←~), <u>보</u>트 (boat)/뽀트(←~).
- 〈 ㅋ ㄲ 〉 가부<u>키(</u>&일歌舞伎, かぶき)/가부<u>끼</u>, 그로테스<u>크(</u>&프grotesque)/그로떼스<u>끄</u>, 데<u>카</u>당스(&프décadence)/데<u>까</u>당스, 리어<u>카</u>(†rear car)/리야<u>까</u>, 마<u>카</u>로니(&이macaroni)/마<u>까</u>로니, 폴<u>카(polka)/뽈까(</u>~&체), 프레스<u>코(</u>&이fresco)/프레스<u>피</u>.

<sup>10) ≪</sup>p≫라도 'Curepto 꾸렙또'와 같이 모음과 청없는 소리 사이에서는 받침 ≪ㅂ≫로 적는다.

<sup>11) ≪</sup>b, d, g≫음이 ≪ㅃ, ㄸ, ㄲ≫로 굳어진 것 외에, 'circle(써클), sofa(쏘파)' 등과 같이 ≪c≫음이 ≪ㅆ≫로 굳어진 예도 제시하였다.

<sup>12)</sup> 북: '단스'도 있음.

 목단주(&프montage)/몽따쥬, 스펙턴클영화(spectacle映畵)/스펙따클영화, 아리에탄(&이arietta)/아리에따, 엘리트(&프élite)/엘리뜨, 오페레탄(&이operetta)/오페레따.

한편 남한에서도 '껌, 빨치산, 히로뽕, 삐라'처럼 관용으로 된소리를 인정한 예도 있다.

남 외: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제5항)

북의56: ○ 어음 구성과 그의 표기법이 이미 굳어져 안정성을 가진 외래 어는 그대로 표기한다.(제100항)<sup>13)</sup>

○ 원어의 개별적 어음이 조선어 외래어에서 독특한 수식화를 입어 이미 굳어진 것은 그대로 표기한다.(제101항)<sup>14)</sup>

북외고: ○ 널리 쓰이어 굳어진 외래어는 그 나라 발음에 관계없이 굳어 진대로 적는다.(예: (○) 뻐스 (x) 바스)

- 원어의 발음대로 적으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뜻을 리해하기 어려운것은 대중이 발음하기 쉬운 형태를 취한다.(예: (○) 글라디올라스 (x) 글래디오울러스〉
- 원어가 동일한 외래어가 두가지로 발음되면서 그 뜻이 각각 다르게 쓰이는것은 현용대로 둔다.(예: (○)고무 (○) 껌〉
- 준 형태가 널리 쓰이는것은 준대로 적는다.〈예: (○) 파마(← 파아마넨트 웨이브)〉

(마)

<sup>13)</sup>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고무, 빵, 구루마, 오바, 타이야, 타올, 네지, 와이샤쯔, 뽐프. 세멘, 공그리, 메리야스, 템뿌라, 카스테라, 만또, 하이야, 로르지, 리레, 한도르, 미싱, 즈봉, 샤쯔, 니스, 휴즈, 사지천, 구두, 마후라, 끄루쇼크, 따바리쒸.

<sup>14) [</sup> i ] ≪b, d, g, c≫ 등의 음이 ≪ㅃ, ㄸ, ㄲ, ㅆ≫로 굳어진 것(前面 (5)를 참조할 것.)

<sup>[</sup>ii] ≪ə≫음이 ≪ㅏ≫로 굳어진 것: curve[kəːv] 카브, skirt[skəːt] 스카트.

<sup>[</sup>iii] ≪∧≫음이 ≪ㅏ≫로 굳어진 것: brush[brʌʃ] 브라쉬, nut[nʌt] 나트.

<sup>[</sup>iv] ≪æ≫음이 ≪ㅏ≫로 굳어진 것: sack[sæk] 사크, valve[vælv] 발브.

<sup>[</sup>v] ≪ei≫음이 ≪세≫로 굳어진 것: game[geim] 껨, message[mesidʒ] 메쎄지.

그 밖에도 제5항과 9항15)이 부분적으로 관련이 된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외래어 표기법에서 慣用을 인정하는 것은 남북한이 같다. 외래어를 차용하는 경로가 다양하여<sup>16)</sup> 표기법에 적용하기 어려운 예가 적잖게 있는 현실에 비추어 慣用을 인정하는 일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관용을 지나치게 인정할 경우에 일어날 혼란을 막고자 하는 규정도 '북외고'에 나타난다.<sup>17)</sup>

#### 다. 표기 일람표

'남외'의 경우 표기 일람표 열셋을 제시하였다.18) 이에 대하여 '북외56'은 '조선어 자모에 의한 로씨야어 자모의 대조 일람표'와 '조선어 자모에 의한 만국 음성 기호(국제 음성 기호)의 일반적 대조표' 둘만 제시하였다가 '북외85'에 와서는 중국어의 注音符號・영어의 자모・프랑스어의 자모・일본어의 가나와 한글 대조표를 각각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북외56', '북외85'는 '남외'가 제시한 '에스파냐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를 비롯하여 이탈리아어·폴란드어·체코어·세르보크로아트어·루마니아어·헝가리어·스웨덴어·노르웨이어·덴마크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는 보이지 않게

<sup>15)</sup> 이 항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제5항: (前略) 중국어로부터 유래하는 외래어 중 이미 굳어진 것은 한자를 매개해서, 즉 한자에 대한 조선어적 발음으로써 표기한다.(後略)

제9항: (前略) 외래어 표기에 있어서 조선어의 음운 조직과 그의 정칙 발음법의 일반 적 원칙과 모순될 수 없다.(後略)

<sup>16)</sup> 외래어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예: 카메라, 모델) 하고, 귀로 들어서 들어오는 것(예: 펨프 pimp)도 있으며, 원어에서 직접 들여오는 것도 있고, 제삼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차용하는 것(예: fan 후앙)도 있다. 또 시기로 볼 때 오래 전부터 쓰인 것 (예: 담배, 남포)도 있고 요즘 들어온 것도 있다.(편수 자료 Ⅲ-2 외래어 표기 용례: 지명·인명, 문교부, 1986, pp. 39~40.)

<sup>17)</sup> 일정하게 굳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말의 발음 색채가 진한 것들과, 한두 개의 받침만 고치면 원어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원어대로 적는다.(예: (〇) 발레 (x) 바레)

<sup>18) 1986</sup>년 고시본에는 표 다섯(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 에스파냐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이탈리아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일본어의 가나와 한글 대조표, 중국어의 注 音符號와 한글 대조표)을 제시하였으나, 1992년, 1995년에 각각 추가로 고시함에 따라 표는 열셋으로 늘어났다.

된 셈이다. 이는 외국과의 문화 교류면에서 남한이 비교적 열린 사회임에 대하여 북한은 그렇지 못함을 말한다고 하겠다.

다음에 표 1(국제 음성 기호)과 한글 대조표에서 서로 다른 예를 보기로 하다

#### 1. [ð]

'남외'나 '북외85'(영어 2-17)에서 모음 앞에서는 'ㄷ'으로, 자음 앞 또는 어말에서는 '드'로 적는다고 하였으나, '북외56'에서 'ㅈ'으로 대응시켜 'rythm[riðm] 리 즐(제57, 68항)'을 예시하기도 하였다.

#### 2. [s]

'남외'나 '북외56'(영어2-19)에서 모음 앞에서는 'ᄉ'으로, 자음 앞 또는 어말에서는 'ᄉ'로 적는다고 하였으나, '북외85'에서 모음 앞에서는 ≪ㅆ≫으로 대응시켜 '[misisipi] 미<u>씨씨</u>피, [səːkl] <u>써</u>클, [saiəns] <u>싸</u>이언스'를 예시하였다.

#### 3. [A]

[ʌ]에 대하여는 북한 표기법에서 다소 亂脈相을 보인다.

'북외56'에서는 'ㅓ'를 대응시켜 남한과 차이가 없었으나

 double[dʌbl] <u>떠</u>블(제54항)
 rugby[rʌgbi] <u>럭</u>비(제55항)

 lunch[lʌntʃ] <u>런</u>치(제59항)
 bus[bʌs] <u>뻐</u>스(제101항)

때로는 같은 '북외56'에서도 'ㅏ'로 보인 예가 있다.

brush[braʃ] 브<u>라</u>쉬(제54, 60, 71, 101항) nut[nʌt] <u>나</u>트(제101항) cover[kʌvə] <u>카</u>바(제53, 56, 101항)

이것을 '북외85'에서는 'ㅏ'로 대응시키게 되었다.

cut[kʌt] <u>카</u>트 son·sun[sʌn] 싼

이와 같이 남한은 '--', 북한은 '--'로 대응시킨 데서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난다.

터치(touch)/타치

럼(rum)/람

스컹크(skunk)/스캉크 필프(pulp)/팔프

### 4. [Ea]

[ɛ]에 대해서는 '남외', '북외56'가 함께 '세'로 대응시키면서도19) [ɛə]에 대하 여는 남한은 '에어'로, 북한은 '애어'로 대응시켰다.

Sinclair[sinkl&ə] 싱클레어/씽클래어(영어 2-1)

bear · bare[bɛə] 베어/배어(영어 2-1)

fare[f&a]

페어/패어(영어 2-1)

chair[tsə]

체어/채어(영어2-7)

#### 5. mm. nn

철자가 'mm'이나 'nn'이고 이것을 '口'과 'ㄴ'으로 각각 읽을 적에 '남외'가 'ㅁ' 과 'ㄴ'으로 적는 데 대하여, '북외85'(영어2-11, 12)에서는, 'ㅁㅁ'과 'ㄴㄴ'으로 적되. 첫번째 'ㅁ'이나 'ㄴ'은 앞 음절 받침으로 적도록 하고 있다.

( - - - - )

community[kɔmiuːniti] 커뮤니티/콤뮤니티20)

dilemma[dilemə] 딜레마/딜렘마

mammoth[mæməθ] 매머드/맘모스

( L - LL )

Jenner[d.senə] 제너/젠너. dinner[dinə] 디너/딘너 running[rʌnin)러닝/런닝. tannin[tænin] 타닌/탄닌

#### 라. 표기 세칙과 용례

'남외'의 표기 세칙에는 열다섯 언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이 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폴란드어, 체코어, 세르보크로아트어, 루마니아어, 헝가리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편수 자료

<sup>19)</sup> 다만, 프랑스어의 경우 '북외85'에서는 대체로 [ɛ]를 'ㅐ'와 대응시키고 있다.

<sup>20)</sup> 이 외에도 '북외85'에서는 'comma[komə] 콖머'를 예시하였다. 그러나 남한에서도 관 용으로 '콤마'를 인정한 까닭에 'ㅁㅁ'으로 적는 데에는 남북한 간에 차이가 없게 되었 으므로 예시어에서 제외하였다.

III-2(문교부, 1986)에도 라틴어, 그리스어, 러시아어 등에 관한 표기 세칙이 추가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북외85'에는 여덟 언어(중국어, 러시아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에스파냐어, 라틴어)에 관한 표기 세칙이 있어 언어 수로 '남외'에 비하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서는 남한 외래어의 대종을 이루고 있고, 북한 외래어에서도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의 표기 세칙을 중심으로 비교한 다음, 독일어·프랑스어·중국어의 표기 세칙 중 특기할 만한 차이를 보이고자 한다.

### 1. 영어의 표기

(가)

표 121)에 따라 적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적는다.

남 외: ○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제1항-1)

- 짧은 모음과 유음·비음([l], [r], [m], [n])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 다.(제1항-2)
- 위 경우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의 [p], [t], [k]는 '으'를 붙여 적는다.(제1항-3)

북외56: ※ 제54, 55항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들 원칙 중 특히 제1항-1에 적용되지 않은 예가 북한의 국어 사전이나 국어 교과서에 풍부하게 나타난다. 원어의 파열음이 파열되지 않고 그대로 막히는가, 아니면 파열되는가에 따라 외래어의 형태도 자연히 달리 나타나게 되는데 다음 예에서 보듯이 남한은 주로 내파 쪽을, 북한은 외파 쪽을 취하고 있다.

가닛(garnet)/가네트 로봇(robot)/로<u>보트</u> 소켓(socket)/소<u>케트</u> 스크<u>랩</u>(scrap)/스크<u>래프</u> 스틱(stick)/스티크 알파벳(alphabet)/알파<u>베트</u> 클립(clip)/클리프 포켓(pocket)/포<u>케트</u> 피크<u>닉(picnic)/피크니크</u> 홉(hop)/호프

<sup>21) &#</sup>x27;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를 이른다.

남 외: 어말의 [ʃ]는 '시'로 적고,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

라 '새, 셰, 셔, 시'로 적는다.(제3항-2) (나) 북외56: 상악음 ≪∫≫가 어말에 오는 경우에는 ≪쉬≫로 대조하여 표기 한다.(제60항)

북외85: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쇄, 쉐, 샤, 쉬≫로 적는다.(2-21)

≪∫≫과 관련한 남북 표기법의 차이를 용례와 함께 보이면 다음과 같다.

[ʃ] 시/쉬 flash[flæf] 플래시/플라쉬 [ʃæ] 섀/쇄 shadow[ʃædou] <u>섀도/쇄</u>도우 [ʃe] 셰/쉐 shepherd[ʃepəd] <u>셰</u>퍼드/<u>쉐</u>파드(북외56) · <u>쉐</u>퍼드 (북외85) [ʃʌ] 셔/샤 shutter[ʃʌtə] <u></u>셔터/샾타 [ʃi] 시/쉬 shilling[ʃilin] 실링/쉴링

남 외: 어말 또는 자음 앞의 [ts], [dz]는 '츠', '즈'로 적고, [tʃ], [dʒ]는 '치', '지'로 적는다.(제4항-1) 북외56: ※ 제59항과 관련되나 '왈쯔(waltz, 남: 왈츠), 빤쯔(pants, 남: 팬츠)'와 같은 예외도 있다.

(라) { 남 외: 모음 앞의 [tʃ], [dʒ]는 'ㅊ', 'ㅈ'으로 적는다.(제4항-2) 북외56: ※제57항과 관련된 것으로, 규정으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북외85'와 국어 사전·국어 교과서에서는 다음 예처럼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tʃaː] 차/챠	Charles(tfa:lz)	<u>찰</u> 스/ <u>챨</u> 즈(2-7)
[tʃʌ] 처/챠	chuck(tfak)	척/ <u>차</u> 크(2-7)
[tʃə] 처/쳐	question(kwestfən)	퀘스 <u>천</u> /퀘스 <u>쳔</u> (2-7)
[tʃɔ] 초/쵸	chalk(tʃɔːk)	<u>초</u> 크/ <u>쵸</u> 크(2-7)
[ʧu] 추/츄	amateur(æmətʃuə $r$ )	아마춘어/아마츈어
[dʒɑ]자/쟈	autogyro[əːtodʒqirou]	오투자이로/오투자이로

 [dʒʌ]저/쟈
 jungle(dʒʌŋgl)
 정글/챬글

 [dʒɔ]저/져
 journalist[dʒə:məlist]
 전널리스트/젼널리스트

 [dʒɔ]조/죠
 John(dʒɔn)
 존/죤(2-8)

 [dʒu]주/쥬
 Jupiter(dʒupitə)
 주피터/준피터(2-8)

(마) { 남: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제7항) 북: ※제77항<sup>22)</sup>과 같다.

남한 사전이나 교과서에서 장모음의 장음을 따로 표기한 예가 있다. 이는 남한의 표준 발음법이나 외래어 표기법에서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다. 국어 사전의 외래어 표제어에서 장음으로보인 예의 대부분은 화학 용어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셀룰<u>라아</u>제(cellulase)/셀룰<u>라</u>제 카르복실<u>라</u>아제(carboxylase)/카르복실라제

(바) { 남 외: 중모음<sup>23)</sup>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auə]는 '아워'로 적는다.(제8항)

북외56: ※[auə]에 대한 규정은 찾을 수 없고<sup>24)</sup>, [ou]에 대한 규정도 다음과 같은 변천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북외56' 제74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ou≫를 하나의 모음 자모 ≪ㅗ≫로 대응시키고, 이 때 발음을 길게 했으나

broker[broukə] 브로카(제54항) stove[stouv] 스토브(제57항) coat[kout] 코트(제73항) hotel[houtel] 호텔(제74항) show-window[fouwindou] 쇼윈도(제74항) over[ouvə] 오바(제74항)

'show-window[fouwindou] 쇼우윈도'(제58, 61항)<sup>25)</sup>처럼 같은 표기법

<sup>22) &#</sup>x27;북외56'에는 제77항이 두 번 나타나는바, 여기에서는 앞의 것이 해당된다.

<sup>23)</sup> 이 重母音은 二重母音으로, 中母音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sup>24) [</sup>auə]가 없는 대신, [uə]가 나타나 ≪ㅜ어≫로 됨을 보이고 있다.('북외85', 영어 2-1)

자료에서도 원칙과 용례가 엇갈리는 예도 있었다.

'북외85'에서는 국제 발음 기호와의 대응에서 [ou]가 ≪ㅗ우≫임을 명시하였다.

Ivanhoe[aivənhou] 아이반호우(2-23) boathouse[bouthaus] <u>보우</u>트하우스(2-2) joke [dʒouk] <u>조우</u>크(2-8)

남: ○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26)는 그것을 구성 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제10항-1)

○ 원어에서 띄어 쓴 말은 띄어 쓴 대로 한글 표기를 하되, 붙여 쓸 수도 있다.(제10항-2)

북: ※제84~86항과 부분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 외래어를 표기할 적에 구성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표기하여 보여 주는 예를 남한 자료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메<u>탄을(methanol)/메타놀</u> 부<u>탄</u>올(butanol)/부<u>타놀</u> 에<u>탄</u>올(ethanol)/에<u>타놀</u> 파<u>인애</u>플(pineapple)/파<u>이내</u>플

한편 북한 사전에서 구성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표기하여 보여 주는 예도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구<u>아네</u>티딘(guanethidine)/구<u>안에</u>티딘(Guanethidinum&라) 에시<u>오나</u>미드(ethionamide)/에티<u>온아</u>미드(←ethionamidum&라)

## 2. 독일어의 표기

독일어 표기에서 남북한이 차이를 보이는 것 중 몇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

<sup>25)</sup> 이것을 제74항에서 '쇼윈도'라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sup>26)</sup> 이 '복합어'는 학교 문법 용어에 따르면 '합성어'가 된다. 이하 같다.

다.(규정분 뒤의 괄호 속 빗금의 앞은 '남외'를, 뒤는 '북외85'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가) 어말의 [r]와 '-er[ðr]'는 '어/르, 에르'로 적는다.(제1항-2/ )

Herr[hɛr] 헤<u>어</u>/<u>헤르</u>(3-18) Tanhäuser 탄호이저/탄호이제르(3-1 붙임)

(나) 철자 'berg', burg'는 '베르크, 부르크/베르그, 부르그'로 적는다.(제3항/)

Heisenberg 하이젠베르<u>그</u>/하이젠베르<u>그</u>(3-19) Hamburg 함부르크/함부르그(3-1)

(다) 자음 앞의 'sch'는 '슈/쉬'로 적는다.(제4항-1/3-19)

Schneider 쇼나이더/슆나이데르(3-19) Schmidt 쇼미트/슆미트(3-19)

(라) 'a, i' 등 모음 앞의 글자 'w'는 '바,비/와,위'로 적는다.( /3-23)

Wagner <u>바</u>그너/<u>와</u>그네르(3-23) Ludwig 루드비히/루드위히(3-7)

(마) 'z'('zz'포함)는 'ㅊ, 츠/ㅉ, 쯔'로 적는다.( /3-26)

Helmholz 헬름홀<u>츠</u>/헬름홀<u>조</u>(3-12, 26) Salzburg 잘<u>츠</u>부르크/잘<u>조</u>부르그(3-26)

이 밖에도 화학 용어 등을 장음으로 표기하는 예가 남한의 사전과 교과서에 다수 보인다.

디아스타아제(&독Diastase)/다아스타제

리<u>파아</u>제(&독Lipase)/리<u>파</u>제

#### 3. 프랑스어의 표기

프랑스어 표기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epsilon]$ , [r], [w]'를 들 수 있다.

(가) [ε]는 대체로 '세/H'로 적는다.

Verdun[vɛrd@] <u>베</u>르됭/<u>배</u>르됭(2-6) Versailles[vɛrsaij] <u>베</u>르사유/<u>배</u>르싸이(유)(2-9) Genève [ʒənɛv] 주<u>네</u>브/쥬<u>내</u>브(2-13)

(나) 어말과 자음 앞의 [n]는 '뉴/ㄴ뉴'27) 로 적는다.(제3항-1/2-12)

Montaigne[mɔ̃tɛn] 몽테뉴/몽吜뉴 Champagne[ʃɑ̃pan] 샹파뉴/샹빤뉴

(다) 반모음 [w]는 '우아/와, 과'로 적는다.(제5항/2-14)

Duvois[dybwa] 뒤<u>부아</u>/뒤<u>봐</u> Antoine[ãtwa:n] 앙투안/앙퐌

그 외에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倂記하는 문제라든가,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남한 외래어 표기법에서 特記할 만한일이라 하겠다.

<sup>27)</sup> 그 밖에 모음 앞에서는 각각 'ㄴ냐, ㄴ뇨, ㄴ뉴, ㄴ뉘, ㄴ내, ㄴ냉, ㄴ냥'으로 적는다.

#### 마. 그 밖의 표기 차이

그 밖에 국어 사전과 국어 교과서 외래어의 표기면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모음별, 자음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예시어에는 원어나, 원어의 언어명이 상이한 것도 포함하였다.

#### 1. 모음 차이가 있는 예

모음 차이는 단모음 대 단모음, 단모음 대 이중 모음, 이중 모음 대 이중 모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모음 차이는 모음 길이에서도 나타난다.

## (가) 단모음 : 단모음

<	}	-	H	>	알토(&이alto)/ <u>앨</u> 트(←~).
<	}	-	7	>	<u>카</u> 누(canoe)/ <u>커</u> 누(←~).

〈 ㅏ - ㅗ 〉 스<u>타</u>킹(stocking)/스<u>토</u>킹<sup>28)</sup>.

 ( ㅐ - ㅏ )
 그래프(graph)/그라프, 그램(gram)/그람(gramme), 램프(lamp)/람프, 앤풀(ampoule)/앞풀, 앤글(angle)/ 알글(←~), 침팬지(chimpanzee)/침판지, 캠거루(kanga roo)/캉가루, 탱고(tango)/탕고, 탱크(tank)/탕크<sup>29)</sup>.

> 레이<u>더</u>(radar)/레이<u>다</u>, 레이<u>저</u>(laser)/레이<u>자</u>, 스리쿼<u>터</u> (three-quarter)/스리쿼<u>타</u>, 스코<u>어</u>(score)/스코<u>아</u>, 스피

<u>커</u>(speaker)/스피<u>카</u>(←~).

〈 ㅓ - ㅗ 〉 갤런(gallon)/갈론, 배드민턴(badminton)/바드민톤, 시 럽(syrup)/시룝(←~), 심벌(symbol)/심볼, 아이런니 (irony)/아이로니, 아코디언(accordion)/아코디온, 컴퍼스(compass)/콤파스(~&이), 컴퓨터(computer)/콤퓨터.

( 1 - 1 )

<sup>28)</sup> 북: '스타킹'도 있음.

<sup>29) &#</sup>x27;貯藏庫'의 뜻임. '戰車'라는 뜻으로는 '땅크'임.

<sup>30)</sup> 북: '빠넬(панель&러)'도 있음.

- ( 1 + ) 포럼(forum)/포름(~&라). (11--) 이젤(easel)/이즐. ( - - 1 ) 프롬프터(prompter)/프럼프터. 〈 T - ー 〉 수자폰(sousaphone)/스자폰(←~), 요구르트(vogurt)/ 요그르트. 지구라트(Ziggurat)/지크라트(←ziggurat) 퀴논(quinone)/키논, 퀴놀린(quinoline)/키놀린, 퀴니 ( -1 - 1 ) 딘(quinidine)/키니딘, 펭귄(penguin)/펭긴, (--1) 샌들(sandal)/싼달, 틴들현상(Tyndall現象)/틴달현상 ( <del>-</del> - 1 ) 커튼(curtain)/카텐(←~). (---) 드라이버(driver)/도라이바(←~), 드럼통(drum桶)/도람 <sup>\*</sup> 통(←~), 비로드(&포veludo)/비로도(←~), 애디슨병 (Addison病)/아디손병. ⟨ - - T ⟩ 지그(iig)/지구(←~). 오버블라우스(overblouse)/오바부 라우스, 프리즈(frieze)/후리즈(←~). (--1) 카타스트로프(&프catastrophe)/카타스트로피(~&영). 필름(film)/필림. ( ] - 1) > 디자인(design)/데자인, 디저트(dessert)/데자트, 미터 (meter)/메터, 비디오(video)/비데오, 시멘트(cement)/ 세멘트, 이미지(image)/이메지, 코미디(comedy)/코메디, ()-1) 벤치(bench)/벤취, 피겨(figure)/회거(←~), 필터(filter) /휠터 (나) 단모음 : 이중 모음 ( } - ; ) **카바레(&프carabet)/캬바레(←~)**.
- 리케차(rickettsia)/리케치아.
- ( ; ) 다이얼(dial)/다이얄, 컴프레서(compressor)/콤프레쌰 (←~).
- (!-!) 새틴(satin)/샤틴(←~), 재즈(jazz)/쟈즈, 캐러멜(cara mel)/<u>캿</u>라멜( $\leftarrow\sim$ ), <u>캐</u>비지(cabbage)/캬베쯔( $\leftarrow\sim$ ), 캐 비아(caviar)/캬비아르(caviare).
- ( - > 텔레비전(television)/텔레비죤

```
( ] - 17 )
              제스처(gesture)/제스츄어, 캐리커처(caricature)/카리카
              츄어(←~).
 〈 T - ル 〉
             부르주아(&프bourgeois)/부르죠아.
 ( ᅬ - ᅰ )
             푄(&독Föhn)/휀.
 〈 丁 - ㅠ 〉
              두랄루민(duralumin)/듀랄루민, 스크루(screw)/스크류,
              플루트(flute)/플류트.
 ( 1 - 11 )
              데뷔(&프début)/데뷰. 퀴륨(curium)/큐리움(Curium&
              亚)
 ( ] -1] )
              패시지(passage)/파쎄이지.
 ( ] -π )
              루지(luge)/류쥬. 아인시타이늄(einsteinium)/아인슈타
              이니움.
  (다) 이중 모음 : 단모음
 ( 1 1 - 1 )
              멀라이트(mullite)/물리트1).암모나이트(ammonite)/암
              모니트, 타이탄(Titan)/티탄, 하이에나(hvena)/히에나
 (111-1)
              네이팜(napalm)/나팜, 콘트라베이스(contrabass)/콘트
              라바스(contra-bass).
 (11 - 1)
              레이스(lace)/레스, 베이컨(bacon)/베콘, 스케이트(skate)
              /스케트, 스테이지(stage)/스테지, 케이스(case)/케스,
              테이블(table)/테블, 테이프(tape)/테프, 페이지(page)/
              페지
 ( 1 - 1 )
              셰퍼드(shepherd)/세퍼드2)(←~)
 ( - - - )
              타월(towel)/타올(←~).
 ( TT - } )
              스튜디오(studio)/스타디오.
 ⟨π-⊤⟩
              리보뉴클레아제(ribonuclease)/리보누쿨레아제, 일류미
              네이션(illumination)/일루미네이숀, 큐틴(cutin)/쿠틴,
(-11-11)
              스웨터(sweater)/세타(←~).
 ( ] - - ] >
              케이크(cake)/케키.
```

<sup>1)</sup> 북: '물라이트'도 있음.

<sup>2)</sup> 이 글 90면에서는 '쉐파드·쉐퍼드'로 제시하였으나 국어 사전에서는 어형을 달리하여 나타남.

(라) 이중 모음 : 이중 모음

〈 세 ] - } ] 〉 프레이즈(fraise)/후라이스(←~).

〈 ㅕ - ㅑ 〉 셔빗(sherbet)/샤베트. 와셔(washer)/와샤(Washer).

( i - 고 ) 디플레이션(deflation)/데플레이숀, 센세이션(sensation) /센세이숀, 컨디션(condition)/컨디숀

〈 i - ] } 이니셔티브(initiative)/이니시아티브.

〈 ᅪ - ㅜ ㅏ 〉 스<u>콸</u>렌(squalene)/스<u>쿠알</u>렌.

〈 눠 - ᅪ 〉 샤워(shower)/샤와.

## 2. 자음 차이가 있는 예

자음 차이는 첫소리(初聲)가 다른 것, 끝소리(終聲, 받침소리)가 다른 것, 파열음의 처리가 다른 것, 음이 첨가되거나 탈락된 것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33)

# (가) 첫소리[初聲]가 다른 예

(ㄱ) 예삿소리 : 예삿소리

〈 L - 人 〉 매머드(mammoth)/맘모스(←~&프)<sup>34)</sup>

( ㄷ - ㅈ ) <u>디</u>스토마(distoma)/<u>지</u>스토마(←~&라), 라<u>디</u>오(radio) /라지오(←~)

〈 ㅅ - ㅈ 〉 갈락토오스(galactose)/갈락토즈, 리소좀(lysosome)/리조솜, 카세인(casein)/카제인, 케토오스(ketose)/케토즈, 플라스마(plasma)/플라즈마.

〈 ㅈ - ㄱ 〉 <u>지</u>베렐린(gibberellin)/<u>기</u>베렐린.

〈 ㅈ - ㅅ 〉 바<u>제</u>도병(&독Basedow病)/바<u>세</u>도병(basedow~), 프레 .

<sup>33)</sup> 예 중에는 표기법에 따르지 않고 관용으로 인정된 것들도 있다.(매머<u>드</u>(mæməθ], 술 파<u>다</u>이어졸[sʌlfəθaiəzoul], 마라<u>톤[mærəθan]</u>, 나프<u>타[næfθa]</u> 등.)

<sup>34) &#</sup>x27;북외56'에서는 '영어'로, 조설말사전(1992)에서는 '프랑스어'로 보이고 있는바, 프랑스 어 사전에는 이 말이 나타나지 않는다.

# 이<u>즈</u>(fraise)/후라이스(←~).

# (ㄴ) 거센소리 : 거센소리

( ㅌ - ㅊ ) 센<u>터-(centi-)/센</u>치-, 센<u>터</u>멘털리즘(sentimentalism)/ 센치멘탈리즘.

#### (ㄷ) 예삿소리 : 거센소리

- ( ¬ ¬ ) 슬래그(slag)/슬라크(←~), 지구라트(Ziggurat)/지크라 트(←ziggurat).
- 〈 人 ㅊ 〉 살리실산(salicyl酸)/살리칠산.
- 〈 ㅅ ㅌ 〉 에<u>시</u>오나미드(ethionamide)/에<u>티</u>온아미드(←ethionamidum&라).

#### (리) 거센소리 : 예삿소리

- ( ㅊ ㅈ ) 테라초(&이terrazzo)/테라조(~&영).
- 〈 ㅋ ㄱ 〉 <u>컯(cup)/고</u>뿌<sup>35)</sup>, 코도반(cordovan)/고도반.
- 〈 E ᄉ 〉 마라톤(marathon)/마라손(←~), 나프<u>타</u>(naphtha)/나 프사(Naphtha).
- 〈 교 ㅂ 〉 익스<u>패</u>더(expander)/엑스<u>반</u>드(←expande), 트럼<u>펫</u> (trumpet)/트럼<u>베</u>트(←trumpette), <u>페</u>달(pedal)/<u>베</u>달 (Pedal).
- 〈 ㅍ ㅎ 〉 커<u>프</u>스(cuffs)/카홋스(←~), 파(&이fa)/화, <u>파</u>이버(fiber)

<sup>35) &#</sup>x27;경기나 경연 같은 데서 우승한 단체나 개인에게 상으로 주는 큰 잔 비슷하게 생긴 공예품'이라는 뜻으로는 '컵'임.

/화이버, 폼(*plat*form)/홈, 푄(&독Föhn)/휀(바람), 포가(&이fuga)/홋가(←~), 프라이팬(frypan)/홋라이판(← frying pan), <u>피</u>날레(&이finale)/<u>휘</u>날레<sup>36)</sup>, <u>피</u>네(&이fine)/휘네, 필터(filter)/휠터.

## (ロ) 예삿소리 : 된소리

- ( ^ ㅆ ) 마산지(massage)/마<u>싸</u>지, 미<u>산</u>일(missile)/미<u>싸</u>일, 비<u>시</u> (B.C.)/비<u>씨</u>, <u>산</u>이렌(siren)/<u>싸</u>이렌, <u>산</u>인(sign)/<u>싸</u>인, <u>소</u>나티네(&독Sonatine)/<u>쏘</u>나티네(sonatine&이), 집신 (Gypsy)/집씨.
- 〈 ㅈ ㅉ〉 배<u>기(badge)/빠찟(←~), 잼(jam)/쨤(←~), 젤</u>리(jelly) /<u>쎄</u>리.

# (나) 끝소리[終聲, 받침소리]가 다른 예

원어 또는 철자가 다르거나 표기법이 다른 데서 외래어 어형 중 받침에서 차이 나는 예가 있다. 이들은 'ㄴ'과 'ㅁ', 'ㄴ'과 'ㅇ', 'ㅁ'과 'ㅇ' 사이를 다음과 같이 넘나들고 있다.

- 〈 L ロ 〉 <u>덴</u>푸라(&일 テンプラ, ⊂&포tempero)/<u>덴</u>뿌라(←&포~).
- 〈 ∟ ○ 〉 리본(ribbon)/리봉(←~), 맨홀(manhole)/<u>망</u>홀, 오랑우 <u>탄</u>(&말orang-utan)/오랑우<u>탕</u>, 콘크리트(concrete)/콩 크리트.
- 〈 o ㄴ 〉 <u>방</u>크스소나무(banks~)/<u>반</u>크스소나무(←banksiana~), 아이젠<u>메</u>거증후군(Eisenmenger症候群)/아이젠<u>메</u>거징후 군(~徴候群).

<sup>36)</sup> 북: '피날'도 있음.

# (다) 음이 첨가되거나 탈락된 예

ŋ'은 받침소리 'o'으로 적기로 하였으나('남외'. 영어의 표기 제5항-1/'북외 85' 영어2-13), 북한 자료에서 'o'에다 '그'를 덧붙인 예가 보인다.

그리고 'l'은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와 'n' 이외의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ㄹㄹ' 로 적되, 첫번째 'ㄹ'은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기로 하였으나(영어의 표기 제6항 -2/2-14), '앞 음절의 'ㄹ'이 탈락되는 예가 많다.

# (ㄱ) 음이 첨가된 예

《 ㅇ - ㅇ그 》 공(gong)/공그, 영률(Young率)/양그률(young~), 용스트롬 (angstrom)/옹그스트롬(Angstrom), 텅스텐(tungsten)/탕그스텐.

# (ㄴ) 음이 탈락된 예

라일락(lilac)/라이락, 보일러(boiler)/보이라(←~), 볼링 (bowling)/보링(경기), 올리브(olive)/오리브(←~), 인 델리(&러intelligentsia)/인테리(←~&영), 프롤레타리 아트(&독Proletariat)/프로레타리아트, 할렐루야(&헤 Hallelujah)/할레루야(halleluiah).

#### III

이상 남북한의 외래어 표기를 표기법 관련 자료와 국어 사전·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외래어 표기법의 체제를 볼 때 남한이 외국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의 수나 표기 세칙 대상 언어의 수에서 북한의 두 배 정도 되어 하나하나 대응하여비교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다.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면에서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기, 1음운 1기호로 적기, 받침으로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쓰기, 일부 외래어에 대해관용을 존중하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통적이다. 다만,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

안 쓰기에서는 북한 표기법 몇몇 세칙에서 된소리를 쓰도록 한 데서 차이를 드러내게 되었다.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서 남북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ð], [s], [ʌ]'와 결합형인 '[ɛə], mm, nn' 등이다.

표기 세칙과 용례 중에는 무성 파열음이 원칙과 다른 용례를 보였고, [ʃ], [tʃ], [dʒ]와 모음이 각각 결합하였을 때 발음 차이를 나타냈다. 그 밖에도 장모음 표기라든지 복합어 표기 방법상 차이를 보였다.

표기법 관련 자료 외에 국어 사전과 국어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용례들도 대상으로 할 때 남북 간에 보이는 어형 차이는 더욱 다양하게 나타났다.

우선 모음 차이는 단모음 대 단모음에서 20유형, 단모음 대 이중 모음에서 14유형, 이중 모음 대 단모음에서 10유형, 이중 모음 대 이중 모음에서 9유형으로 세분되어 총 53유형이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특히 'ㅐ/ㅏ', 'ㅓ/ㅏ', 'ㅔ / ㅔ', 'ㅓ/ㅗ' 등에 속하는 예가 많았다. 그 밖에도 남한의 화학 분야 일부 외래어들이 장음으로 처리된 것이 특기할 만하였다.<sup>37)</sup>

자음 차이는 첫소리(初聲)나 끝소리(終聲, 받침소리)가 다른 것, 파열음의 처리가 다른 것, 음이 첨가되거나 탈락된 것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소리가 다른 것은 예삿소리 대 예삿소리에서 5유형, 거센소리 대 거센소리에서 1유형, 예삿소리 대 거센소리에서 4유형, 거센소리 대 예삿소리에서 6유형, 예삿소리 대 된소리에서 6유형, 계삿소리 대 된소리에서 4유형으로 세분되어 총 26유형이 나타났다. 자음 중에서는 남한의 예삿소리나 거센소리에 대하여 북한에서 된소리로 발음하는 예가 많음을 볼 수 있었다.

음의 첨가나 탈락면을 보면 북한 쪽이 'ㄴㄴ', 'ㅁㅁ' 등으로 'ㄴ'과 'ㅁ' 등을 덧붙인 반면, 'ㄹㄹ'로 적혀야 할 단어들이 앞 음절의 'ㄹ'을 탈락하는 예가 상당수 있었다.

복합어를 표기하는 데에 있어서도 남한 사전이 구성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표기하여 주는 반면, 북한 사전에서는 이어서 발음한 것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예가 있었다.

앞으로 남북한 외래어의 표기상의 차이는 어문 규범이나 사전·교과서 외에 신문·잡지·방송 등도 아울러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이러한 언어 현장에서 보이는 모습이 좀더 생생하고 실제적인 자료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sup>37)</sup> 이 장음 처리는 표준 발음법이나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므로 재고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고영근 등(1989), 북한의 말과 글, 을유 문화사.
국립국어연구원(1992), 북한의 언어 정책,
(1993), 기본 외래어 조사 자료집.
(1993), 외래어 표기 용례집: 동구권 지명·인명.
(1995), 외래어 표기 용례집: 북구권 지명·인명.
(1995), 한국 어문 규정집.
국어연구소(1986), 외래어 표기 용례집: 지명·인명.
(1988), 외래어 표기 용례집: 일반 용어.
(1988),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III, 한자어·외래어 편).
국토 통일원(1977), 南北韓 言語 槪念의 異質化 硏究.
(1977),南北韓語의 音聲學 및 言語學的 比較 研究.
金文昌(1988), 외래어 연구(Ⅱ), 語文研究 57, 一潮閣.
金敏洙(1989), 북한의 국어 연구, 一潮閣.
(1973), 國語 政策論, 고려 대학교 출판부,
김세중, 북한 말의 수록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제5권 제1호(1995. 봄).
남성우·정재영(1990), 북한의 언어 생활, 한국 문화 예술 진흥원 문화 발전
연구소.
문교부(1948), 들온말 적는 법.
(1958),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
(1987), 편수자료 Ⅲ-2 외래어 표기 용례(지명·인명).
배현숙(1989), 남·북한 외래어 표기법 비교 분석, 북한의 어학 혁명, 白衣.
성광주(1989), 북한의 외래어 표기법, 고영근 등, 북한의 말과 글, 을유 문화
사.
兪萬根(1989), 외래어 표기의 바른 길, 한국어 연구 논문 22, KBS 한국어연
구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조선어 및 조선 문학 연구소(1956),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이은정(1996), 남북한 어문 규범 고찰, 백산 출판사. 전수태・최호철(1989), 남북한 언어 비교, 녹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1985), 외국말적기법, 과학,백과사

전·출판사. 조선어 학회(1941),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조선어 학회. 조재수(1986), 북한의 말과 글, 한글 학회.